

閑麗海域의 안개와 섬과 바다公園의 絶景

崔 光 烈

八影山の 絶妙와 Rias式 海上公園

5월 22일과 23일의 연휴를 맞아 필자는 樂山會가 주최하는 山行에 참가하여 한반도의 南端 海域의 육지 가장자리를 찾아 갔다. 최근 몇년동안 일종의 身病으로 장거리 山行을 감행하지 못하여 그럭저럭하던 터였으나, 이날은 무조건 따라 나섰다. 21일(土) 오후 4시 동대문부근에서 차를 출발하여 全州를 거쳐 차가 求禮大橋에서 西南쪽의 높은 고개를 넘을 때는 캄캄한 밤 10시경이었다. 果木에서 順天市를 거쳐 筏橋에서 고흥반도로 들어선 것은 한밤중이요 高興邑의 대동여관에 짐을 풀 것은 1시경이었다. 도중에 南原市에서 이름난 새집추어탕의 別味를 즐기느라 一行이 시간을 소비한 탓으로 더 늦어진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都農間에 物價의 차이가 거의 없고, 농어촌의 생산품도 같은 현상이 옛날과 달랐다.

이 山行의 리더는 등산가로 「韓國百山集」의 단행본을 낸 安京護씨라서 山行에는 껍도움이 되었다. 22일 일요일 아침에 고흥읍에서 이 반도의 東端에 있는 八影山(608m)을 등반하기로 하여 占岩面으로 가서 그곳 楞伽寺(比丘尼寺)를 찾았다. 이 절은 신라말기의 창건이라고 하는데 고려 초기 成宗무렵에는 普賢寺라 했다가 개칭되었다고 한다. 대웅전은 목조지 꽤 큰 가람으로 丹青을 하지 않고 아람드리 두리기둥이 투박하나 강건한 석가래와 홍포위의 8작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女僧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능가사의 楞伽는 능가경(經)이 麻耶부인에 대한 설화를 기록한 것이므로 그에 연유한 것 같다.

八影山은 외길을 따라 가장 서쪽 봉우리로 올라가

서 동쪽으로 岩山의 일곱봉우리를 타고 넘어야 한다. 암벽이 40m에서 1백정도로 치솟아 있는 7봉은 소위 록·클라이밍(Rock-Climing)을 해야하는 난코스요, 해서 자일을 이용하는 곳도 두곳이나 되었고, 숨차고 험한 산이다. 이 八影山은 위치가 외지고 또한 따로 등산코스가 없었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드물고 더구나 이날은 아침부터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서 암벽등반에는 한층 불리한 판국이었다. 일행중에서 탈락자는 미리 불참하고 25명정도의 남녀가 아침 9시에 출발하여 중착지인 南占岩國校앞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경이었다.

人生事나 山行이나 험하고 힘드는 과정을 겪었을 때 비로소 그 眞味를 안다고 할까. 이 암봉의 하나, 하나의 정수리에 섰을 때의 상쾌함은 남해의 섬바다가 한눈에 무한히 전개되어 안개 속에서 다시 비가 개인 맑은 전망은 그야말로 바다와 섬의 하모니를 색깔로 점철한 공원에 온 것 같았다. 동쪽의 수많은 대소섬과 소금밭해역에서 배를 타면 바로 보이는 곳이 麗水 앞 바다요 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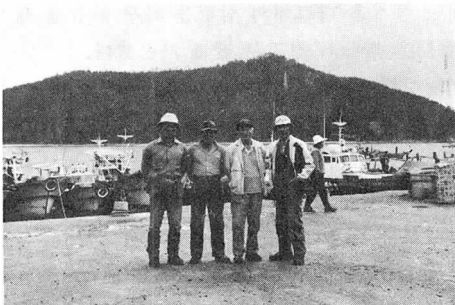
이른바 Rias式 해안으로 불리우는 海上의 경관은 이 암봉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지 않고는 그 풍치를 만끽할 수가 없다. 비지땀을 흘리고 나니 바위에 앉아서 바다와 육지가 거의 같은 平面 위에 전개되고, 民生의 생활상 또한 녹녹한 가운데 설혹 풍요롭지는 않다고 해도 자연의 혜택이 주어진 넓은 들녘은 살만하다고 할까. 一行은 중착지의 민가에서 점심을 먹고 한창 모심기에 바쁜 들풍경을 바라보았다.

오후에 一行은 小鹿島를 찾았다. 위문점 탐방이랄까. 고흥반도의 서쪽끝 鹿洞부두에서 마주 보이는 소록도로 건넜다.

小鹿島の 교묘와 한 處女の 슬픔

소록도는 天刑의 병으로 혹은 불치병으로, 전염병으로 알려진 나병환자의 수용지이다. 올해로 72주년을 맞는다고 하니 한민족의 근대사의 시발 또는 일제식민사의 출발과 그 때를 거의 함께 한다. 일제도 나환자에 대한 조치는 서둘러 자기보호를 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오늘의 나병은 결코 불치병도 전염병도 아니다. 다만 피부염의 접촉에서 전염된다고 하나 공기 오염등은 없고 음성환자의 경우는 100% 치유가 가능하니 반가운 의학계의 보고다. 一行이 이 섬에 들리자 섬은 그야말로 정적 속에 잠겨있고, 병원장이 섬의 모든 행위와 질서를 관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섬은 1리, 2리로 행정분할이 돼있었으나 도로와 주택 등의 구획정리는 완전에 가까울 정도로 정비되어 있었다. 지금 환자는 2천명정도라고 하며 이 2천명상대로



▲ 鹿洞부두에서 바라보이는 小鹿島(向左에서張·金·崔·朴)

카톨릭, 기독교, 圓佛敎 등의 교회와 우체국이 있었다. 섬을 가로 지르는 큰 길을 따라 공원이 있는 곳까지의 3km 정도의 길가에서 보이는 곳에는 초입의 병원 사무실과 이곳저곳에는 입주환자가 퇴원한다고 나간 폐옥으로 보이는 집들,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보이는 붉은 벽돌 단층들이 보이고 <위험지대>라는 지표가 있는 곳에서 해안길을 따라 더 나아가니 신축의 4·5층의 병원 건물과 구건물이 보이고, 나환자들이 저녁을 만드는 주택들이 보였다. 공원에는 황금측백, 솔소나무 등 잘 가꾸어진 나무공원이 있었다.

필자는 이번 남해행을 하기에 앞서 바로 이 고흥반도에 있는 5명의 교사와 6명의 소록도에 근무하는 간호원들이 쓴 《깃발은 흔들어야 했다(사람문학동인發

行)》라는 조그만 시집을 받아 보았다. 그런데 이날 공원을 돌아서 新築병원 옆으로 4·5명의 일행과 걸어나오는데, 바로 이 병원과 구건물의 횡단보다 아래의 신관쪽 입구에서 휠체어를 탄 한 처녀가 치렁치렁하게 넘치는 검은 머리칼에 耳目口鼻가 잘 생긴 얼굴로 꾸벅 머리를 숙여 우리에게로 인사를 했다. 나는 무심결에 인사를 받고 고개를 숙여 응답을 하면서 더 걸어나오니, 그녀의 몸 전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 처녀는 한쪽 다리가 무릎밑에서 잘리고 붕대를 감고 있었고, 한쪽 손도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하체와 상체 더구나 얼굴은 너무 예뻐다.

나는 그녀를 두번 세번 돌아보는 사이에 그녀는 뭔가 말을 하고 싶은 표정을 지었고, 그 얼굴은 이루지 못하는 대화, 아니 자기의 신병에 말 못할 슬픔을 간직한채 휠체어를 앞으로 내몰다 다시 뒤로 모는 것을 보았다.

필자는 앞의 간호원 중에서 홍윤자양의 <소록도 1, 2, 3, 4> 등의 연작시를 읽고, 또한 그 현장으로 가서 눈으로 한 처녀의 모습을 보고, 운명의 거역할 수 없는 한 局面의 침통함을 느끼고 또 보았다. 나는 환갑을 지나 60여세의 세월을 막무가내로 살아오면서 그 날도 가파른 岩山의 정상에 올라 삶의 보람을 느꼈다면 저 어린 처녀의 그 사연과는 어떤 의미의 해후인가 하고 새삼 생각하면서, 그 소록도의 부두가에 와서 島陽邑의 부두와 바다를 바라본 그 시간을 지금도 되새기고 있다. 나의 준비부족으로 전화 한통화도 걸지 못하고 떠나온 처사를 뉘우치고 지금 이 글로 그곳 간호원과 교사들에 안부를 삼고 한 처녀의 내일에 길이 행복이 깃들기를, 빌어보는 것이다. 아 그 가련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農漁村의 都市化와 南海의 錦山

23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 이날 아침은 남해섬의 남쪽 끝 尙州해수욕장이 있는 곳에서 동반인 金詩人·張社長·朴과장등 넷은 민박을 하고 일어났다. 어제 저녁 소록도를 출발하여 해질녘에는 차가 광양읍과 제철소가 있는 고속도로를 지나왔다. 해상에 불빛이 반짝이는 제철소를 바라보며 이윽고 섬진강 河口의 휴게소를 통과하고, 노량해역의 바다에 뜬 반짝이는 전등의 불꽃과 여객선, 해상 관광선의 모습이 어둠

에 잠겨 있는 밤풍경을 보면서 남해대교를 건넜다. 南海邑의 중심가는 서울의 어떤 번두리 중심가와 같이 교통도 붐비고 시가지의 형성도 서울의 그것처럼 화려하고 商品도 고급품이 즐비했다. 우리가 들어갈 찻집의 생선회는 雜魚따위로 볼품도 없고 역시 관광객을 위한 영업방식이었다. 一行은 이날도 숙소가 없어서 尙州까지 직행하여 겨우 민박을 했다. 이유는 불교관계의 행사때문에 이러한 섬에서도 숙소가 동이 났다고 하니 결코 가난한 섬은 아닌 것 같았다. 민박을 한 집도 단층들이었으나 집은 건평도 넓은 30평정도는 되는 벽돌집이었다.

아침 6시에 상주해안의 느티와 소나무의 숲을 지나 산책을 했으나 푸죽간에는 고기도 동인 났다고 했다. 一行은 아침 해를 보기 위해 금산入口를 가서등산을 시작했다. 거의 직선의 오름길은 잘 다듬어진 돌계단이었으나, 밤새 정상쪽에 있는 보리암에서 부처님에게 염불과 시주를 하고 내려오는 아녀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탓으로 유달리 붐비고 소란스럽기도 했다. 한시간만에 보리암의 초입에 있는 바위 동굴로 된 雙紅門을 들어서니 괴괴한 岩石에 펴 뚫린 두 눈알같은 형상은 볼만했으나 그 속에는 수많은 촛불이 켜져 어수선하기조차 했다. 굴속으로 트여진 계단길을 따라 오르니 오른 쪽으로 보리암이 바로 뒷쪽에 우뚝 솟은 대장암의 바로 아래에 있었다. 꽤 큰 암자의 대웅전에는 佛子들이 밀어닥쳐 경축분위기가 넘치고 있었으며 梵鐘도 15톤은 넘직했다. 대장암은 錦山의 정상부에 솟아있는 華嚴岩과 座仙臺, 四仙峯등의 갈날바위나 둥근바위로 된 여러개의 암봉과 함께 해발 681m의 금산의 山勢를 매우 돋보이게 하는 기암절벽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금산은 최정상부에 넓은 공지가 있고 한



▲ 錦山 정상에서 바위와 상주해수욕장을 배경으로

편 山의 后面은 평지와 완만한 경사지가 있어서 深山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었다. 최정상부에는 옛날의烽火台가 돌을 쌓아 이루어져 있고 그 주변의 큰 바위덩어리도 제법 형상의 묘미를 보이고 있었으나 모두가 어지럽혀지고 있었다. 정상에서 남쪽의 정면으로 상주해수욕장과 남해의 바다가 안개 속에 아삼하게 펼쳐져 보였다.

그러나 이 금산의 산세나 주변의 경관은 俊秀하고 장관도 있는 편인데도 8影山과는 달리 너무 俗氣가 넘치고 있어 대도시의 근교와 같은 분담한 인상을 풍기고 또한 깊은 계곡이 없어서 계곡의 정취를 볼 수가 없었다. 8影山은 下山길에도 人跡이 드문 적적한 긴 계곡이 있고, 계류도 풍부하여 하계등반에는 귀로에 좋은 휴식처가 되겠으나, 금산은 北面의 下山길도 깊고 심오한 정취는 느낄 수가 없는 곳이다.

一行은 12시경에 錦山入口를 출발하여 귀로에 올랐으나 다소 굴곡있는 섬의 浦口가 오히려 남해의 서정을 더하고, 녹음방초속, 푸른 大海와 녹색大地가 펼쳐내는 풍경은 나그네의 심정을 자꾸 아삼한 저 인간의 原初의 無極의 경지로 끌고 가곤했다.

南海大橋에서 서울까지는 6시간코오스이다. 光州 쪽 고속을 이용할 경우가 그렇다. 도중에 휴게소에 들리면 천호동까지에 30분이 더 걸린다. 이 귀로를 오면서 필자는 웬지 무거운 심정이 되었다. 國土는 지금 어디에서나 山地開發, 도로공사, 水利사업, 농지정리에 綠地助成등 公共사업으로 대지는 파헤쳐지고 있었고, 고을마다 都市化의 類型과 팽창하는 物量主義에 휘말려 있으면서 한편 都農間의 격차는 점차로 좁혀가고 있었다.

그러나 農漁村의 부채의 총액이 5조원을 웃돌고 있고, 농가보다 漁村이 4백여만으로 더 많다는 數字의 현장을 둘러보고 아직은 貧富의 문제나 相對的 빈곤 문제는 도시의 빈민과 함께 정책의 새 전환이 요구되는 상태이다. 한편 국민의 소리는 사뭇 아우성 속에도 풍요와 소비를 자랑하고 있는 참으로 奇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2박 3일에 본 世態風俗이라고 할까. 物量主義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다운 文化的 良識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하지만 생활에 쫓기는 사람이나, 소비를 구가하는 풍요한 층에서나 뭔가 아직 걸돌고, 直情的인 것 같아 아쉬움을 남고 있었다.

(筆者 作家)